

순천시, 촘촘한 청소년 보편 복지 강화한다

50개 사업 350억 규모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지역 청소년 자립·참여 보장 강화 등 로드맵 구축

순천시가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꿈을 찾고 안정적으로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열고,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찾고 건강한 성장과 자립,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2026년 순천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순천시 청소년 인구의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립했다.

시는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순천'이라는 목표로 총 5개 영역, 50개 사업, 350억 1200만원 규모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며, 15개 부

서가 협업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추진 방향은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등이다.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는 순천형 정원과 육 진로체험, 청소년 버스킹,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청소년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한다.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은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치유를 위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인턴십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는 최근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성범죄, 디지털 미디어 피해의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돕고 유해환경 지도·계도활동을 상시화한다. 참여와 권리 보장 강화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정신건강 증진 사업, 학교급식 및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소년 인구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립됐다. 순천시의 전체 인구 27만5014명(2026년 1월 기준) 중 청소년이 4만4218명(16.1%)이다. 이는 전국 평균 14.6%와 전남 평균 13.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은 순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훌륭한 시민이다"며 "지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과 다양한 참여 기회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보성 '햇빛소득마을'로 에너지 자립 실현

전력 연계·부지 확보 방안 논의

보성군이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 전략과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17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소회의실에서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보성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군 관원 부서, 공공기관 관계자,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에너지 연계 의견을 나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전력 계통 연계 가능성과 공공 유향부지를 활용한 부지 확보 방안 등을 이야기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 설치를 통한 계통 안정화 및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농지법 등 입지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지 확보 방안과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기관별 역할 분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요인 및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의견을 공유하며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



해 마을 유향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올해 사업 공고는 지난 3월 이뤄졌으며, 1차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2차 접수는 7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추진단 운영을 통해 행정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공모 대응 역량을 높여 사업 선정과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대행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복지 향상과 에너지 자립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군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농민농사 위해 모판 이동 '구슬땀' 장흥군 유지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유지면 반월2구를 찾아 모판 옮기기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모판 이동 작업은 육묘된 모를 논으로 옮겨 심기 전 일정 기간 균일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출아 장소로 옮기는 과정으로, 많은 양의 모판을 반복적으로 운반해야 해 수작업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사진제공=장흥군청

'이색 변신' 옛 장흥교도소서 '인생샷' 찍어요

5월 가정의 달 문화행사... 글쓰기 체험 등 다채

장흥군은 옛 장흥교도소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한 '빠빼옹Zip'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정의 달을 기념해 빠빼옹Zip을 찾는 가족,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마련했다.

우선 5월 한 달 동안 빠빼옹Zip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에게는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생네컷' 사진 촬영 2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특히 빠빼옹Zip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한 관람객에게는 3000원 할인권을 한정 수량

으로 추가 증정한다.

문화 행사 역시 준비됐다.

16일에는 지역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캠퍼형 로컬점퍼 '서로살장'이 열렸다.

'서로살장'에서는 통기타 공연 및 풍물놀이, 먹거리, 아나바다 장터 등 풍성한 볼거리를 즐길 기회가 펼쳐졌다.

이와 함께 20일 '글글글 120분의 영감 배송'(글쓰기 체험), 30일 '골목 엮서 사진 배달부'(사진

전시 및 체험) 등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상시 운영되는 '영화로운 책방'에서는 언제든지 영화 감상을 즐길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옛 교도소라는 이색적인 공간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인생샷을 남기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시길 바란다"며 "특히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도 많은 분이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장흥, 맞춤형 복지정책 청사진 마련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실효성 강화

장흥군이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맞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군은 최근 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실무분과장 및 실무분과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장흥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6기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장흥군 복지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담게 된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군은 이번 회의내용을 지역 내 복지자원 현황과 사회보장 수요를 종합 분석해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분과의 주요 역할을 설명하는 강의와 소통을 촉진하는 타운홀 미팅으로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접근과 함께 위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노영환 장흥군수 권한대행은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간 장흥군 복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다"며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복지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광양문화도시센터, 레지던스 참여 작가 모집

28일까지 접수...3팀 창작 지원

광양문화도시센터는 오는 28일까지 '2026 광양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참여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레지던스는 광양의 산업·생태 환경을 디지털 기술과 예술로 새롭게 해석하고 기록하기 위해 기획됐다. 센터는 2023년부터 운영해 온 '광양미디어아트랩(Lab)'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광양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해 미디어아트 창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인터랙티브아트, 사운드아트, 데이터아트 등 미디어아트 전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반 작가이며, 총 3명(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선정된 작가에게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창작 지원금과 창작 공간, 체류 숙소 등을 지원한다. 참여 작가들은 레지던스 기간 동안 자료조사와 실험적 창작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창작 결과물은 오는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 열리는 '2026 광양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28일 정오까지 전자우편(gycc2022@hanmail.net)으로 접수하면 된다. 센터는 서류 심사와 온라인 면접 심사를 거쳐 6월 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 서식은 광양문화도시센터 누리집(www.gycultu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문화도시센터(061-761-0701)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지역 이등장터·신규 창업 등 이어져

곡성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곳곳에서 신규 가게가 잇따라 문을 열며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의 창업을 유도해 농어촌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실제 면 단위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럭에 생필품을 싣고 면 단위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판매하는 효도 장터(이동차량)가 생겨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읍 시가지에도 신규 가게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안정전문점, 치킨전문점, 마트, 식육식당 등 다양한 업종이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한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가 다시 재개업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최근 시간 이후 어두운 읍내 상권에 주점이 새로 생겨나 청년층의 활기가 더해졌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증가 추세다. 올해 1월 말 기준 1069개소였던 가맹점은 5월 현재 1245개소로 176개소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읍 지역 가맹점은 522개소, 면 지역 가맹점은 723개소로 면 단위에서도 기본소득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월부터 4월까지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률은 2만4544명(2만8000명 대비 88%)이며, 총 지급액은 139억원 중 71.2%인 약 100억원(5월 11일 기준)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면 지역 사용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연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본소득과 연계한 면 단위 창업 확대 등 주민들이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구례,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 대응 빗물받이·배수로 등 시설 정비

구례군은 최근 상황실에서 여름철 호우·태풍·폭염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수미 부군수를 비롯한 주요 재난관리 부서장과 구례경찰서, 구례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후위기 심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장기 폭염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재난 유형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엘니노 등 기후 변동에 따른 태풍 대응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점검 내용은 산사태·침수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및 통제 체계, 하천·배수로·공사장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방안, 빗물받이·배수로 등 배수 시설 점검 및 정비계획, 고령자·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보호대책 등이다.

오수미 부군수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